

학부(과)	항공운항학과	학번	2022	성명	이00
제목	[미드와 영어원서를 활용한 영어학습법]				

○ 에세이 작성 동기(추천 이유 등)

영어를 잘 하려면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미드와 영어원서를 통한 Listening과 Reading 학습법에 대해서 소개할 것인데, 영어 학습 방법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중요한 것은 학습법의 접근성과 흥미성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언어 실력이 향상되는데 학습에 흥미를 붙이지 못한다면 얼마 못 가 실패하고 말 것이다. TV보다 OTT가 유행인 요즘 시대에 미드를 활용한 영어 학습법은 본인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생들에게 꽤 매력적인 학습법이라고 생각하여 글을 적게 되었다.

참고로 이 학습법은 영어 단어를 어느정도는 알고있고 웬만한 영어 듣기 실력(수능 영어듣기 평가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을 갖춘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실제 학습 방법, 적용 사례 등)

1. 미드를 통한 Listening 실력 키우기

하루 일과가 끝나면 매일 밤마다 (매일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3~4회 이상) 미드를 1~2시간 시청하는 방법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막을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설정하는 것이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상 내용을 100% 이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막을 최대한 참고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되 말이 너무 빠르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영어자막을 참고하면 된다. 자막을 영어로 설정하라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어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재밌는 영어 표현이 많은데 이를 직접 해석하는 재미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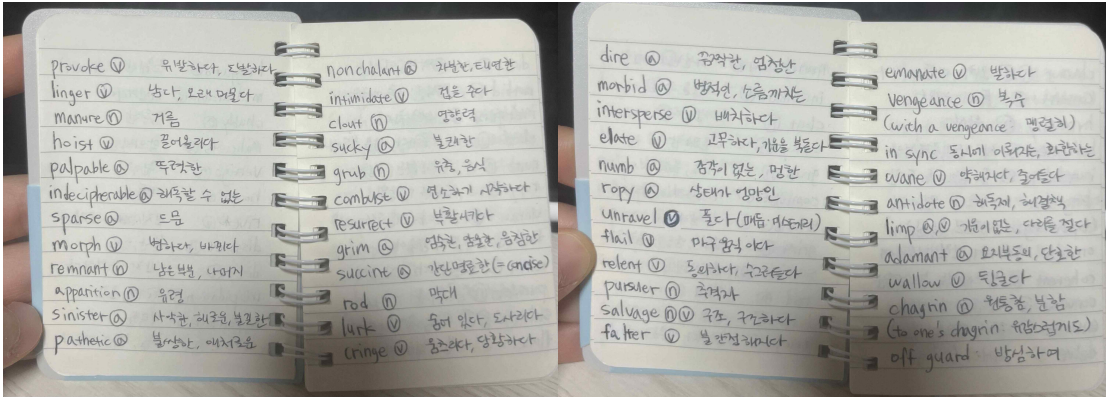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들자면 “지금 나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 알아.” 문장을 “I know you don't want to see me.” 가 아닌 “I know I'm the last person you want to see.” 라고 표현한 것이나, “왜 파리 남자들이 더 잘생겨진 거 같지?” 문장을 “Don't you think the men in Paris become more handsome?” 이 아닌 “Did all of the men in Paris get a lot hotter?” 라고 표현한 것들이 흥미로웠다.

이 학습법의 장점은 우리가 책으로만 공부하던 교과서 영어가 아닌 현지인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등장인물들이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에티튜드를 통해 현지의 문화나 에티켓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영어공부하기 좋은 미드로는 Gilmore Girls, Gossipgirl, Emily in Paris 등을 추천한다. 만약 OTT를 구독하고 있지 않다면 유튜브의 SparkTV, Nicely Entertainment 등의 채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영화를 봐도 좋다.

2. 영어원서를 통한 Reading 실력 키우기

많이 알려진 소설책(ex. 해리포터,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전달자 등)을 영어원서로 읽어 보는 방법이다. 매일 20-30쪽 읽기 등과 같이 분량을 적게 정해놓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을 완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책을 고를 때에는 이해하기 쉽도록 어느정도 배경지식이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책이면 더 좋다.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영단어나 숙어 및 관용적 표현이 나오면 노트에 직접 메모하고 뜻을 찾아(영단어-품사-의미) 적어보는 것이다. 그 날 책읽기가 끝나면 오늘 새롭게 배웠던 단어나 표현 등을 복기하고 여러번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단어에 친숙해지도록 한다. 본인의 경우 들고 다니기 좋은 작은 노트를 하나 사서 학교 통학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계속 익혔다.



이 학습법의 장점은 영어 읽기 실력이 월등히 향상된다는 점이다. 토익 같은 시험에서 흔히들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장문 해석하기인데, 영어원서를 많이 읽다보면 영어로 된 글이나 에세이를 읽는 것이 수월해지고 해석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꾸준히 계속 영어책을 접하다보면 한글 책을 읽는 것만큼 영어 책을 이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앞서 소개한 미드 보기는 영어의 구어체를 학습하는 것이라면, 영어원서 읽기 방법은 문어체를 학습할 수 있다. 하나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단어를 학습할 수 있고 고급 어휘가 등장할 때도 많기 때문에 영단어의 상식을 한 차원 넓힐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읽기 좋은 영어 원서로는 ‘로알드 달’의 Matilda,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The Witches, The BFG를 추천한다. ‘Lois Lowry’의 The Giver도 흥미롭게 읽은 책이다.

○ 학습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본인은 영어원서 읽기를 통해 문해 실력이 월등히 늘었다. 토익에서 장지문을 마주치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게 되었고 지문을 해석하다가 시간에 쫓기는 일은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남을 정도이다. 영어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지루하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포기할까 싶었던 적도 많았는데, 목표를 낮게 설정하여 완독한 책을 하나둘씩 늘려갔던 것이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또 미드를 꾸준히 보면서 듣기 실력도 늘었다. 2025년 여름 방학에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었는데 거기에서 현지인들과 대화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 특히 호주는 다문화가 많이 발달해있어 여러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듣고 말하는 영어는 듣기 평가에 나오는 표준화된 영어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악센트가 존재하며 앞으로는 인도식 영어나 스페인식 영어에도 더 친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체성적				
시험	시험일	수험번호	성적	성적표발급
TOEIC	2024.11.24(일)	159363	Total 950 (LC 495, RC 455)	자세히보기
TOEIC	2024.09.07(토)	107155	Total 940 (LC 470, RC 470)	자세히보기

○ 최종 소감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저만의 학습법을 정리하며, 영어는 단순한 평가 과목을 넘어 미래의 기회를 확장하는 핵심 동력임을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특히 항공운항을 전공하며 마주할 미래를 생각할 때, 영어는 단 하나의 항목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비행 전 점검(Checklist)'과도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거창한 목표에 매몰되기보다 매일의 체크리스트를 완수하는 데 집중했고, 그 투박한 기록들이 실질적인 실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소중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꾸준함의 힘을 믿고, 종강 이후에도 해이해지지 않고 정진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다지겠습니다.

본인이 공유한 노하우가 영어를 공부하는 다른 이들에게 유의미한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저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정한 소통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